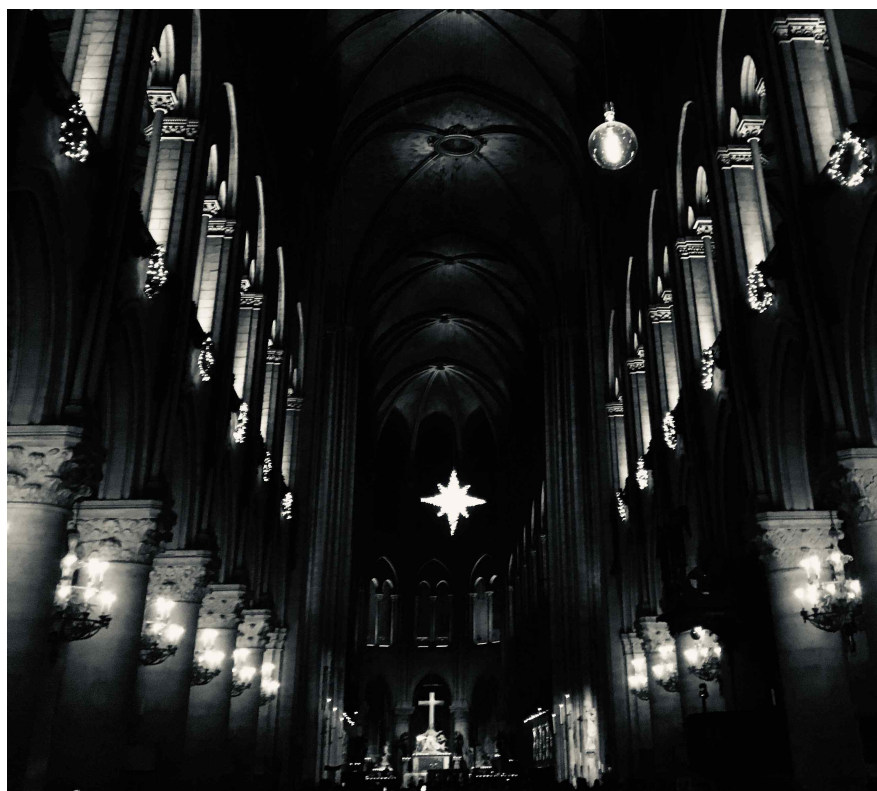


만남

2019년 12월
통권 179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 소박한 별-----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회개하여라-----	4
교리	사회교리의 이해-----	8
기도 소개	겨울의 기도-----	11
영적 상담	-----	12
나눔	-----	14
공동체 소식	-----	16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12월 기도지향》

❖ 보편 지향 : 젊은이의 미래

모든 나라가 젊은이들, 특히 고통 받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소박한 별

함부르크의 겨울 하늘에서는 별을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흐린 날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드문드문 어둠 하늘 한켠에서 소박한 빛을 밝히고 있는 별 하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결코 어두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별은 소리 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동방의 현자들이 별을 따라 간 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그 빛을 따라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별은 그렇습니다. 달은 찬란함으로 어둠을 지워가고 있다면 별은 잔잔함으로 어둠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런 별과 더불어 사람들이 살아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별 하나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별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하십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을 때, 그 빛은 찬란함의 빛이 아니라 어둠에 묻혀버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는 별처럼 소박함의 빛인 것 같습니다. 찬란함의 빛은 수많은 성인 성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소박함의 빛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려는 예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인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 이슬 내릴 때까지.”라는 노랫말로 시작하는 ‘두 개의 작은 별’이라는 노래는 독일 민요를 윤형주님이 개사한 곡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한 때 별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는 별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수줍은 듯 소박하게 자신의 빛을 드러내는 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침 이슬이 내릴 때까지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잃기 시작하면 언제라도 어둠 안으로 녹아버릴 수 있는 위태위태한 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현자들이 굳이 이 별을 보고 찾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둠에 묻히지 않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빛을 보고 누군가는 작은 감동을 받고, 누군가는 작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별처럼 빛나지는 않아도 적어도 어둠에 묻혀 살지 않았으면 하는 소박한 소망의 빛이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회개하여라(마태 3,1-12)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6장 “하느님 약속하신 분” 1,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항상 깨어 있는 마음으로 당신을 기다리게 하소서.
- ▶ 생명과 사랑을 위해 오시는 주님, 저희가 늘 준비하며 살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태오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3 1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2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3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 4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꿀이었다.
- 5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6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7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 3 7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8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9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10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11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2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다음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다 광야에 한 사나이가 등장하여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3,2)고 선포합니다. 그는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두른 채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겉모습은 야만적이고 거칠어 보이지만 이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를 연상시키며 주어진 소명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촉박한 ‘시간’을 알리며 “회개하여라.”(2절) 하고 외칩니다. 바로 그 사나이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새 시대의 주인이 되실 ‘주님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3절; 이사 40,3) 하기 위해 외치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하느님께서 통치하실 하늘나라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요르단 강에 온 바리사이와 사두가이의 위선을 보며, 회개란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곧 단순한 자기반성이나 형식적인 참회 의식만으로 진정한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두는 것, 하느님 그분께 전적으로 속한 삶만이 하늘나라를 맞이하기 위한 합당한 자세라고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위선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통해 다가오는 하늘나라를 맞이하고 싶다면 요한의 처세술을 따르면 됩니다. 요한은,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훌륭한 분이어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또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예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며, 타작마당의 곡식을 가려 쪼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마태 3,11-12).

진정한 회개는 외면적인 자기과시나 허영심에서 비롯된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하느님 중심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선포한 회개의 삶을 스스로 살아간 진정한 하느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6장 “하느님 약속하신 분” 3, 4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믿든지! 말든지!

- 성경 이야기 -

songdin

구약 - 39권의 책, 929개의 장, 23214개의 절,
592439개의 단어가 2738100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신약 - 27권의 책, 270개의 장, 7967개의 절,
132253개의 단어가 933380개의 글자로 이루어졌다.

성경에 **개**에 관한 표현은 있어도 **고양이**에 관한 표현은 없다.

'Jesus wept' 요한복음 11장 35절인 이 문장은 신, 구약을 통해 가장 짧은 문장이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 주님(Lord): 7797번, 미움(hate): 86번, 죽음(death): 370번,
소금(salt): 46번, 사랑(love): 306번, 개(dog): 41번,
믿음(faith): 246번, 희망(hope): 128번.

'Jesus wept'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은 사람은 멜기덱이다.
그런데도 그는 11번이나 성경에 등장한다.

※소재를 보내주신 핫핫핫님께 감사 드립니다.

www.zem.co.kr

34. 생명의 지성소인 가정

오늘날 한국사회는 가정 공동체의 모습에서 큰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6·25 전쟁 전에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대가족 중심의 가정이었지만, 1970~80년대 산업화 이후 점차 핵가족 형태로 가정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심지어 21세기 한국 사회 안에서는 졸업과 취업, 그리고 안정된 직장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결혼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으며,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도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1인 가정 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늦은 나이의 결혼은 결국 출산 문제로도 이어져 고령의 출산에 따른 산모와 아이의 건강 문제가 발생했고, 더군다나 신생아 출생률이 세계 최하위를 자랑하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는 풍조가 결국 사회 전체의 구조를 흔드는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가정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입니다. 부부는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을 통해 본성상 자녀를 낳아 기르며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점차 혼인과 출산이라는 전통적이고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부는 인격적인 사랑을 통해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부부 사랑은 본성상 생명을 받아들이도록 열려 있으며, 하느님에게서 오는 선함과 충만함을 선포하도록 부름 받은 인간은 출산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존엄성을 탁월하게 드러냅니다. 또한, 이러한 출산은 가정의 사회적 주체성을 표현하며, 사회의 토대가 되는 세대 간 사랑과 연대의 역동성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통해 비롯된 아기의 생명은 생명을 부여해 준 사람들인 부모를 위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간추린 사회교리> 230항 참조)

무엇보다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돈이나 명예, 성공보다는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장 드라마 속에서 반복되는 생명의 가치를 헐뜯는 내용보다는 생명을 존중하고 가정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박한 바람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면 더 좋겠습니다.

35. 어린이의 존엄과 권리

요즘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중 가정 폭력의 심각성은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점차 핵가족화하는 가정 속에서 부모님들은 맞벌이하며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이혼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조손 가정이 늘고 있으며, 많은 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고 성장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회의 사회교리는 가정 내에서 자녀의 존엄을 존중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와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관심이 자녀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의 존엄성을 깊이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에 큰 존중과 관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러한 아동 존중과 권리 보호는 모든 자녀에게 해당되지만, 자녀가 어릴수록 그 요청은 더욱 절실하며, 병들어 고통을 받거나 장애를 지니고 있을수록 모든 면에 더욱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간추린 사회교리> 244항 참조)

가정 내 아동 폭력의 위험성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어린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공동체의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를 충족시킬 만한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과 음식 부족, 학교 교육에서 제외되는 상황, 부적합한 거주지 등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인류 공동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린이 인신매매, 어린이 노동, 거리로 내몰리는 아이들 문제, 어린이 조혼, 분쟁 지역의 소년 병사문제, 성 착취나 소아 성애, 아동 성추행, 아동 포르노 문제 등 어린이의 존엄과 인권이 침해되는 예는 아직도 수없이 존재합니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가정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어린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조치로 효과적으로 이를 퇴치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간추린 사회교리> 245항 참조)

어린이는 우리 삶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야말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해맑게 웃는 아이들로 가득한 교실 안 풍경을 기대하고, 부모와 함께 웃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한국 사회를 꿈꾸는 것이 과연 비현실적인 망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36. 사회교리와 빈곤 퇴치

2013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착좌 뒤 첫 사목 방문지로 이탈리아 최남단의 람페두사 섬을 찾았습니다. 람페두사 섬은 전쟁과 가난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 거치는 중간 기착지와 같은 곳입니다. 교황님께서서는 람페두사를 방문해 ‘불법 이민자 수용소’에서 미사를 집전하면서 강론을 통해 이민자들에 대한 국제적 무관심을 비판하고 양심의 각성과 형제애를 촉구했습니다.

람페두사는 튀니지에서 불과 120km 거리에 있어서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2012년 9월에는 튀니지 이민자 136명이 타고 가던 배가 람페두사 섬 인근에서 전복되어 50여 명만이 구조되고 나머지는 희생되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람페두사의 비극을 보며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어째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유럽을 향해 밀입국을 시도했을까요? 그 중심에는 가난과 전쟁이라는 인류 공통의 시급한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는 인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고통 받는 대륙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나라가 독립을 이루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일부 권력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독점이었고 다수의 일반 백성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일반 백성들에게 부의 재분배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더라면, 람페두사의 비극과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교황님께서서는 세계화된 무관심을 지적하면서 교회와 사회가 이러한 빈곤 문제와 이민자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사회교리는 인류의 전인적 발전을 위해 빈곤 퇴치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빈곤 퇴치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교회의 우선적 선택’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가톨릭교회가 사회교리 전체를 통해서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교리는 연대성의 원리를 끊임 없이 언급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만민의 선익과 각 개인의 선익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요구합니다. 한편 사회교리는 빈곤 퇴치를 수행하는 연대성의 원리에는 언제나 보조성의 원리가 적절히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근본 바탕인 진취적 정신을 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보조성의 원리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간추린 사회교리> 449항 참조).

겨울의 기도(작가 미상)

주님!

하염없이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며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습니다.

꽃은 열매의 미래이며

낙엽은 다시 돌아날 새순의 미래임을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도

이 낙엽을 살포시 밟으며

몸은 비록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지만
우리네 마음은 새봄을 기대하며 살게 하소서.

겨울,

주님 나신 날의 기쁨이 곳곳에 울리게 하시고
낮은 자, 없는 자, 억눌린 자에게는
환한 꽃 소식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벗어던진 채

당신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나무들처럼
어디선가 하얗게 떨고 서 있을
누군가에게 희망의 훈풍이 되게 하소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

그 약속의 설렘 속에

사랑의 감동을 잊어버리지 않고

당신 앞에 엎디어 간절히 청하오니

겨울에도 온기를 전해주소서.

그리하여, 작은 소망의 샛별들이 소록소록 돌아나게 하소서.



질문

사교집단에는 교주들의 행패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교주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신도들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은커녕 제대로 대우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신도들은 자기 교주를 비판하기는커녕 감싸고 그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올바른 판단을 못 하는 것일까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 소장)

사교집단의 신도들이 가진 문제는 사실 그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심리적인 문제는 일반사회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도덕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듀르켁(Durkheim)은 “아동은 성인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집단의 규율을 지킬 때 도덕적 사회화가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자라려면 어른들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부모나 어른들에게서 예의를 배우고 함께 사는 법을 익히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금수만도 못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 심리학자인 피아제는 반박합니다. 피아제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갖도록 배움으로써 도덕성이 생기고 사회화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인들의 권위에 타율적으로 혹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굴종하는 것은 아주 심하게 열등한 도덕성을 만들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즉 부모가 자신들의 힘을 이용하여 아이들에게 규칙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고 자신들은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심리적 혼란에 빠지고 도덕성 발달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일방적인 존경을 요구할 때 저항하지 못한 아이들은 복종심 의무감 같은 감정에 휘둘리며 살게 되고 그저 주어진 대로 살려고 하는 마치 영혼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병적인 구조는 사회에서도 발생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의 북한과 과거 우리나라 군사정권 시절을 돌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폭압적인 정권들은 국민들이 정치·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숙고하거나 비판의식을 갖는 것을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금서를 선포하고 비판 여론에 대하여는 폭력적인 억압을 하는 등의 사디스트적 행위를 한 것인데 문제는 그런 분위기 속

에서 아무런 비판의식 없는 폭력적 정권에 무조건적 충성, 맹목적 복종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남미가 군사독재 시절 수많은 국민을 죽일 때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감정도 없이 그저 정권에 대한 신봉·복종심으로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죽였지요. 건강한 도덕성이 없는 인간들이 어떤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병리 현상에 대하여는 반드시 비판 세력이 생기기 마련이고 시간이 가면서 이런 열등하고 병적인 도덕성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역사 안에서 무너져버린 독재정권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병적인 복종심이 종교 안에서는 좀처럼 무너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재자들은 일개 사람에 불과함을 모두가 알기에 그가 하는 말의 허위성을 모두가 알지만, 사교집단의 교주들은 신의 대리인 행세를 하는지라 신도들 입장에서는 신의 영역을 건드렸다가 노여움을 타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심 때문에 교주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판을 하기는커녕 감싸기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사교집단의 교주들은 이런 신도들의 심리를 악용해서 신도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주입하고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고 돈을 버는 데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도덕성을 키우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도덕성이 생각 없는 순종이나 맹목적 복종으로 변질할 경우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지는 역사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이 자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 눈 먼 베드로 할아버지의 신앙(정지풍 아킬레오 신부님)

정목환(베드로)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다.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는 눈이 멀었는데 40대 후반에 불의의 사고로 양쪽 눈을 잃은 분이였다. 할아버지는 항상 지팡이를 두드리고 걸어 다니셨는데, 그에게 몸을 의지하고 길을 이끌어 주는 필수품은 바로 지팡이였다.

냉정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선천적 시각장애인이었다면 지금 할아버지의 연세라면 모든 감각들이 예민하게 발달하여 다른 감각으로 살아가는데 불편이 덜했을 테지만, 뒤늦게 앞이 보이지 않게 된 할아버지는 이도저도 아니었기에 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40살에 부인을 일찍 여의고 25년 동안 홀로서기하며 며느리의 그늘 밑에서 살아가던 할아버지에게 홀아비 신세에 말 못할 힘겨운 사연들이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집안에서는 유일하게 혼자서만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세례를 받으셨다고 했다. 베드로 할아버지는 미사를 참석하지 않거나 기도를 소홀히 하면 몸이 아프다고 하실 정도로 신앙이 열렬했다.

할아버지의 집은 성당에서 7Km 떨어진 외딴 산골짜기에 있었다. 이곳은 시내버스가 하루에 세 번 다니는 곳이었다. 버스운행 시간이 미사시간과 맞지 않아 그 부근에 사는 신자들은 대부분 걸어 다니곤 하였다.

할아버지는 금요일과 주일에는 빠짐없이 미사 참례를 하였다. 할아버지는 하루의 소망이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일 행복하다고 신앙고백을 하곤 하였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거의 12시간이 소요되는 왕복 길을 걸어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힘들었다. 일요일은 동행하는 신자들의 도움을 받지만 금요일은 할아버지 혼자 지팡이를 의지하며 저녁미사에 참여해야만 하였다.

“할아버지! 금요일에는 미사참례 안 해도 되요. 주일날만 오세요.”

주위의 많은 신자들이 할아버지 때문에 늘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할아버지는 막무가내였다. 어느 날인가는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다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무심코 던진 말에 할아버지는 “나는 낮이나 밤이나 어두운 것은 마찬가지인데요.”라는 말을 하여 한바탕 웃기도 했지만, 대

부분 그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곤혹스러운 때가 많았다. 할아버지를 차에 태워 드리기도 했지만 워낙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결백한 성품인지라 극구 사양하는 할아버지와 다툼 경우도 있었다. 할아버지가 미사참례 오시는 금요일 밤은 걱정이 되어 전화로 귀가 여부를 확인해야만 잠이 올 정도였다.

누가 뭐라 해도 할아버지는 마치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마르 5,28).’라는 성서 말씀대로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간절한 구원신앙이 몸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모른다. 한(恨) 많은 할아버지의 지난날의 얽힌 사연들을 상상해보면, 그분의 앞뒤를 가리지 않는 막무가내의 고집스런 신앙이 이해가 되기도 하였다.

추운 겨울에는 사제관 응접실이 먼 거리에서 오는 신자들을 위한 대기 장소가 되어 버린다. 베드로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면 모두 일어나서 한마디씩 한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할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인사를 하며 격려해 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베드로 할아버지는 귀가 비교적 괜찮은 편이라 소리만 들어도 누군가를 알아맞히곤 하였다. 베드로 할아버지가 오시면 차(茶) 파티가 벌어진다.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온 몸을 녹이는데 제일 좋다.

할아버지의 신앙은 많은 신자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하였다. 너무 멀어서 성당에 못나오겠다는 신자들의 투정은 할아버지를 떠올리는 순간,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게 했다.

베드로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시편 23장 4절이 떠오른다.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인생의 어둔 밤에 우리가 의존해야 할 유일한 지팡이는 하느님의 손에 있는 지팡이일 것이다. 하느님의 지팡이에만 의지하여 끊임없이 성당에 다니시는 베드로 할아버지의 지팡이야말로 바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손이리라.

이제는 들릴 리 없는 할아버지의 지팡이 소리가 가끔 귓가를 맴도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금요일, 그리고 주일이 되면 지금도 베드로 할아버지의 묵직한 지팡이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 12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나탈리아	김 성 미	25일	마누엘	김 무 진
2일	비비안나	남 궁 현		엠마누엘라 노 엘	허 선 애 이 동 훈
3일	비앙카	허 미 란	26일	스테파노	이 명 원 정 순 문 이 재 원 박 동 승 한 승 종
4일	크리스티안	허 채 열 김 호 현			
6일	아셀라	김 보 경			
8일	마리아	박 순 옥 이 순 자 이 영 희 홍 미 옥	29일	다비드	김 용 일
13일	루치아	배 수 현		사비네	이 금 자
15일	크리스티아나	홍 춘 자			
16일	노아 아델하이드	박 노 아 진 윤 희			

❖ 12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일	비비안나	이진아(O)	23일	빅토리아	강연희(H)
	바울리나	강미향(H)	25일	아나스타시아 노엘라	김영숙(B) 김유경(H)
13일	루치아	최예린(B)	26일	스테파노	문우영(H)
		문정자(H)		스테파니	부종배(O)
		강은지(B)			유순식(H)
	오틀리아	김선우(O)	28일	돔나	이경숙(H) 김효선(H)



❖ 12월 성가번호 ❖

12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1일	92	340	198	91
8일	93	221	180	96
15일	97	218	496	88
22일	찬 양 미 사			
24일	91, 102, 100	101	107	484
25일	107	102	103	101
28일	105	25	188	77
29일	114	172	155	113

❖ 12월 미사 전례 봉사자 ❖

12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1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허길조(안드레아) 허명자(가밀라)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김진호(프란치스코)	3구역
8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주일학교	4구역
15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22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김잔디(아그네스) 김경미(이사벨라)	주일학교	요셉 마리아회
24일	청년회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전 신자
25일	이수웅(필립보) 김순임(안나)	한말조(마리안나) 권지연(안드레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김진호(프란치스코)	1구역
29일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2구역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10월 27일	11월 3일	11월 10일	11월 17일
주일헌금	302,50(1차+2차)	172,12	283,10	418,91(1차+2차)
헌납금	0	80	0	170
구작입금	10월 2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250.00 * 헌납금 합계 500.00			

❖ 자진헌납금 ❖

2019년 10월 22일 - 2019년 11월 17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 헌금납부 :

정마리아 Schuster, 최현봉, 최순남, 최장용, 홍종각,
 김계희 Tunas, 황영선, 최아나벨, 우동천, 서세원, 김민옥,
 진윤희, 신옥희, 김효정, 현영애, 이정수, 윤석순, 강신행,
 이종하, 배성우, 김기연, 오옥수 Raniztsch, 이현묵, 심동근,
 손수희, 문수진 Sebastian, 이정은, 김경미, 김건, 이수웅,
 이공종, 강순행, 방은일, 정순문, 김경열, 한말조,

◆ 구작입금 :

허채열, 이경규, 최화영, 이영원, 육종인, 강일남, 홍경영,
 김춘옥 Zerbock, 이종지 Rother, 김진호, 김부남, 김원자,
 김치수, 김대현, 김형웅, 김동수, 김유석, 이석우, 송문규,
 정정숙, 김정숙 Eilinghoff, 최성자, 이정훈, 이성원, 이명원,
 이상봉, 이영희 Eggerstedt, 백정선, 박준병, 남궁춘배, 허두옥,
 허길조, 권지연 Rabe,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장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예수 성심 성당과 함께 하는 Weihnachtsmarkt(대림바자회)가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있습니다. 11월 30일 토요일에는 14시부터 18시까지, 12월 1일 일요일에는 12시부터 16시까지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12월 1일 일요일에는 16시에 주일미사를 봉헌합니다. 신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2월 9일 월요일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주일에서 이동)입니다. 대축일 미사를 10시에 만남성당에서 봉헌합니다.

3. 12월 15일 일요일 주일미사는 St Olaf 성당에서 15시에 미사를 봉헌합니다. 주소는 Speckenreye 41, 22119 Hamburg입니다.

4. 성탄 대축일 미사를 안내합니다. 12월 24일 성탄 전야 미사 20시 만남성당 강당, 12월 25일 성탄 대축일 미사 15시 예수 성심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5. 12월 26일 목요일부터 12월 27일 금요일까지는 마산교구 재 유럽 사제 신학생 모임으로 인하여 미사가 없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6. 12월 28일 토요일 17시에는 만남성당 강당에서 송년미사를 봉헌합니다. 송년미사 후에는 음식 나눔이 있겠으니 각 가정에서는 음식 한 가지씩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식 나눔 후에는 송년축제가 청년회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복권추첨이 있으니 청년회원들의 지시에 잘 따라 주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7. 12월 29일 주일에는 성 가정 축일 주일미사가 15시에 예수 성심 성당에서 있으며, 1월 1일 수요일에는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미사가 15시에 만남성당 강당에서 봉헌됩니다. 미사 후에는 떡국 나눔이 있겠습니다.

8. 12월에는 소공동체 모임시간을 따로 계획표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각 소공동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2431
2. 11월 미사는 11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St. Hedwig 성당에서 봉헌하였습니다.
3. 12월 미사는 12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시간 변경)에 St. Hedwig 성당에서 봉헌할 예정입니다.
4. 대림시기를 맞이하여 판공성사를 하실 분들을 위하여 신부님께서 오후 3시에 St. Hedwig 성당에 오실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3. 11월 공동체 미사는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St. Antonius 성당에서 봉헌했습니다.
4. 12월 공동체 미사는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에 St. Antonius 성당에서 봉헌합니다. 미사 1시간 전부터 고백성사가 가능하며, 미사 후에는 성탄을 미리 축하하는 파티를 가질 예정입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11월 오스나브뤼크 지방공동체 미사는 11월 9일(토) 17시에 평신도 주일 주일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2. 미사에 앞서 신부님과 함께 김원철(요한) 형제님의 묘소를 방문하여 위령기도를 드렸습니다.
3. 이날 미사에는 브레멘에 사는 김혜림(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과 한국에서 방문하신 이선옥 자매님의 언니 이선희 자매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4. 12월 미사는 12월 14일(토) 오후 5시에 Pernikelmühle에서 봉헌할 예정입니다. 고백성사는 오후 4시부터 가능하며, 미사 후에는 성탄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사 록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배성우(도미니코)
				부회장	권지연(안드레아)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주 일 학 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최영숙(데레사)
예 비 자 교 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민음의 샘 Cu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모후 Pt.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평화의 모후 Pt.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t. (정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매자(베로니카)	
			총 무	신옥희(비아)	
	2구역		구역장	이영희(체칠리아)	
			총 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구역장	김형웅(야고보)	
			총 무	이경구(안스카)	
	4구역		구역장	육종인(베로니카)	
			총 무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박준병(바오로)	
			총무	한승종(스테파노)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 장	심은희(안나)	
여성 봉사회			실무 책임	김매자(베로니카)	
				이정옥(크리스티나)	
				허명자(가밀라)	
				심은희(안나)	

12월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일	대림 제1주일	대림바자회	16시 주일미사
2	월			
3	화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기념일		
4	수			
5	목			
6	금	성 니콜라오 주교		
7	토	성 암브로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대설		브레멘 공동체
8	일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 사회교리 주간)	사목월례회	
9	월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10시 대축일 미사	
10	화			
11	수			
12	목			
13	금	성녀 루치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		
14	토	십자가의 성 요한 사제 학자 기념일		오스나브뤼크
15	일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St. Olaf 성당에서 미사	
16	월			
17	화			
18	수			
19	목			
20	금			
21	토			하노버 공동체
22	일	대림 제4주일, 동지		
23	월			
24	화	예수 성탄 대축일 밤미사	20시 미사, 만남 강당	
25	수	예수 성탄 대축일	15시 예수성심성당	
26	목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	연령회 월례회	미사가 없습니다. 마산교구 모임
27	금	성 요한 사도 복음사가 축일		
28	토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	송년미사 17시 만남강당	
29	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30	월			
31	화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 철 현 미 카 엘
사목회장 한 말 조 마 리 안 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r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미사 10분 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넷째 금요일 16시 00분(4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